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광림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탄생합니다!
www.klmc.church



“간절한 기도가 생수의 강 되어 흘러 넘쳐”

새벽마다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7월 9일(금), 성찬식으로 호렙산 기도회 종료

40일간 뜨거운 기도의 열기로 가득했던 제 33회 호렙산 기도회가 은혜롭게 마무리 되었다. 7월 9일(금) 광림의 성도들은 거룩한 호렙의 성산에서 개인 성찬식으로 성찬식을 행하며 새벽마다 도우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렸다.

5월 31일~7월 9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 본당과 광림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에서 진행된 기도회에서 성도들은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세계 열방과 대한민국의 회복, 한국교회와 광림교회의 복음적 사명, 해외 선교지와 개인과 가정을 위해 눈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기도의 손을 모을 때 두려움이 변하여 위로와 소망이 되었고 기도 응답의 결실을 맺는 기쁨을 나누었다.

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기쁨 체험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주제로 40일간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한 김정석 담임목사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과 영광이 잘

기록되어 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시고, 소경된 자를 고치시며,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 예수님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생명을 구원하는 세상의 빛이시다.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고 세상을 향해 사랑을 베푸신 양의 문이시며 한 마리 양을 귀중히 여기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사랑과 겸손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제자와 증인된 삶을 살아가자”고 전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성도들이 새벽 미명에 예배당에 나와 힘찬 찬양을 올려드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기도회 기간 중 차량운행이 어려운 지역 성도들과 해외거주 등 여

러 사정으로 성전에 나오기 어려운 성도들은 새롭게 개편된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온라인 예배와 유튜브(광림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다.



호렙산 기간 동안 광림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6만 여명에 이른다. 또한 호렙산 기도회는 광림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도 온라인으로 동참했다. 7월 3일(토)에는 감리회 본부 선교국 부장단이 호렙산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학교는 <가족과 함께 오르는 호렙산 기도회>를 진행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가족이 함께 호렙산에 올라 믿음의 기념비를 남겼다. 청년부는 이번 여름 전국 10개 지역 미자립교회 다음세대들을 위한 국내교육선교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헌신을 다짐했다. 청장년부는 7월 3일(토)에 소망사 진관을 열어 본당 로비에서 호렙에 오른 가족들을 위한 기념 사진을 찍어주었다. 새벽마다 일찍 주의 전에 나와 주차봉사에 힘쓴 기드온선교회, 성도들의 안전한 예배를 도운 예배위원회, 예배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한 중보기도위원회, 온라인 생방송을 위한 카메라 봉사, 은혜로운 찬양으로 기도의 은혜를 더한 반주자 등 수 많은 성도들이 각자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자리를 아름답게 지켰다.

소현수 기자

2 광림의 강단

참된 생명을 소유한 삶

3 광림 스토리

새가족위원회 1:1 심방교육

4 특집

호렙산 기도회 간증

6 다음세대

청년부 노숙인선교팀

7 믿음의 현장

광림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8 특집

장천의 아흔인생과 목회신학 이야기

참된 생명을 소유한 삶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누가복음 12장 15절)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Schopenhauer)는 ‘행복론’에서 인간의 행복 조건 중 하나로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제시했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다른 사람을 위해 물질을 선하게 사용할 때 하늘의 상급이 허락됨을 교훈해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삶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며 참된 생명을 소유하게 만들어줍니다.

본문에는 한 부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추수 때에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소출한 곡식들을 많이 보관하기 위해 이전의 공간은 허물고 새 공간을 짓기로 합니다. 그리고 공간에 쌓인 곡식을 보며 좋은 날을 보내리라 상상합니다. 그 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20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며, 그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어리석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참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전할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본문 19절에서 부자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혼과 육, 곧 정신과 육체는 인간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움과 경험을 통해 정신을 폭넓게 하거나 운동을 통해 육체를 강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다룰 수 있지 않습니다.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면 영은 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어 만드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가 된 이후에 생긴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의 회복은 물질 혹은 그 밖의 것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요한3서 1장 2절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영혼과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물질, 지식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며 새로운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 영이 살아나며 참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이 발견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3~21절

13.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14.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16.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19.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

자 하리라 하되 20.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21.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둘째,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자의 비유에는 ‘나’라는 1인칭 주어와 6번이나 나옵니다. ‘내 물건’, ‘내 공간’, ‘내 영혼’ 등의 표현으로 등장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두 자기 자신을 향한 말뿐입니다. 부자의 모습은 이기적입니다. 현대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많은 부와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대부분 행복하지 못하는데, 이는 결국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인한 것입니다. 풍성한 소출을 거둔 부자가 영혼에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19절)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이 죽었습니다. 그는 많은 소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나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 22:39)고 말씀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이웃의 아픔을 같이 하며 돌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을 주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을 허락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15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 때 참된 생명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원하시는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기부를 많이 하는 인물 중에는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의 이름이 어김없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100불로 투자회사를 만들어 커다란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그를 눈여겨 볼 것은 투자방식보다는 그의 인간 됨됨이입니다. 그는 식당에서 식사할 때 언제나 10불짜리 음식을 찾으며, 10년이 넘은 차를 스스로 운전합니다. 가진 부와는 겉맞지 않아 보이는 소박한 워렌 버핏,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떻게 사용할지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열정은 성공의 열쇠, 성공의 완성은 나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버핏은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리며 재벌층의 기부 문화를 격려하며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강과 지혜, 지식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때 참된 생명 또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이끌 것입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믿음의 기억 <소망사진관>에 담다

7월 3일(토), 본당 1층에서 가족촬영 행사진행



제33회 호렘산기도회가 막바지에 이른 7월 3일(토),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광림교회 본당 1층에서 <소망사진관> 행사가 개최되었다.

소망사진관은 2014년 청장년부 주관으로 시작되어 새벽기도회에 참여한 가족들의 '믿음의 기억'을 사진으로 남겨, 각 가정의 작은 교회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했다. 올해로 제8회째를 맞게 되는데 매년 호렘산 기도회 마지막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번의 이벤트로 끝내려 했지만 호응도가 높아 이제 기도회 정례행사로 자리잡게 되었다. 처음에는 작은 크기

의 즉석사진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2015년부터는 필요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한 장의 사진은 무료이지만 추가를 원할 시는 요금을 받고 인화해 주며, 사이즈도 두가지 종류로 하여 액자를 만들고, 사진과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판매수익은 모두 인도네시아 등 해외선교사업의 후원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참가가족이 꾸준히 증가하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잠시 주춤하지만 100가정 이상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개인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제1회부터 촬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진작가 명용인 집사(32교구)는 "부서 공동체의 협조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조금 더하여 이 행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린다. 한 장의 사진이 누군가에게 좋은 선물이 되고, 신앙의 순간들이 대를 이어 유산이 되기도 한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새벽에 꾸미지도 않는 모습들이어서 꺼려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사진촬영을 대비해 오는 모습들도 볼 수 있다. 저도 처음엔 아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여섯 살 된 아이 둘 쌍둥이가 빠로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 기록을 남길 수 있어 은혜가 된다"고 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한 성도는 "5년전 아이를 데리고 호렘산기도회에 나왔을 때 교회에서 가족사진을 찍어 주어 무심코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였다. 그 뒤 매년 아이들이 소망사진관이 열리는 날이면 꼭 가겠다고 하여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가정의 소중한 추억앨범으로 남게 되는 것 같아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이득섭 기자

선교구 목사가 찾아가는 1:1 심방교육

8주간의 새신자 교육을 통해 소속감과 정착률을 높여



광림교회 새가족 위원회에서는 새가족을 직접 찾아가는 1:1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8선교구 새신자들을 찾아가서 보살피고 있는 오세우 목사를 만나 보았다.

찾아가는 1:1 심방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시대에 새신자는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이후에 들어온 새신자들은 어느 때보다 교회 정착률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의지와 함께 8주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교회의 소속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일에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정착률은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정희 사모님과 한상국 장로님의 결단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새신자들의 교회 정착을 돕기 위해 선교구목사가 직접 찾아가서 광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신앙생활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기독교 기본교리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1:1교육을 하시면서 느낀 점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해보니 그분들의 반응이 의외로 좋았습니다. 새신자인데 매주 목사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에 감동받고 교회에서 대해주는 것들이 격식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매주 약속한 시간을 기다리며 교육 받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축복기도까지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 또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교구 담당 새가족 양육위원이 함께 심방교육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심방 후 매주 한 번씩 개인적으로 새신자를 찾아가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림교회 부흥을 위한 최전방에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새가족 위원회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률을 높이려면 앞으로의 방향은

새가족이 광림교회에 첫걸음을 하면 가장 먼저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새가족 위원회입니다. 이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기쁨반 4주, 새생명반 4주 교육과정을 철저히 이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발걸음부터 8주까지의 과정 안에 광림교회에서 새신자들에게 갖는 애정과 관심, 배려가 많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선교구 목사님이 새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여 빠른 시간에 교회에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시대로 인해 이러한 방법이 모색되어 시도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이런 패러다임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신자교육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동기부여를 주면 마음이 열리고 그로 인해 광림교회 부흥의 시너지가 될 것입니다.

백명순 기자

포토 뉴스



제33회 호렘산 기도회 선물

호렘산 기도회를 마치며 참석한 성도들에게 마스크 기념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청년부 교육선교 후원금 마련

청년부는 호렘산 기간 중 국내교육선교를 위한 후원금 마련 행사를 했다.



기도의 벽

호렘산 기도회 기도의 벽에 쌓인 성도들의 기도제목



감리회 본부 선교국 호렘산 참석

7월 3일(토) 감리회 본부 선교국 부장단이 호렘산 기도회에 참석했다.

담임목사 동정



5/31~7/9 제33회 호렘산 기도회

7/8 남연회 감리사협의회, 장로회

연합회 연합예배및 간담회

7/9 호렘산기도회퍼휴예배및 성찬식

7/11 은정감리교회

더 워십하우스 입당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제33회 호렙산 기도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제 마음은 광림교회를 늘 갈망하면서도 삶의 어려움으로 어느 순간 멀어져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저희 가족을 지켜주시지 않는 서운함에 슬퍼만 하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할 기회들을 주셨고, 차츰 생활과 사업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사위들을 맞이하게 되었고, 교회에 온전한 발걸음을 하지는 못했지만 간간이 CTS로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구 전도사님께서 전화 통화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받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에 순간 마음이 열리면서 부족한 믿음이지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 홍성인 집사의 투병생활로 저희 가족에게 다시 슬픔이 찾아오면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큰딸(홍영란)은 결혼생활 6년이 지나도록 아기 소식이 없어 인공수정과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겪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3개월 투병생활을 끝으로 우리를 떠났고, 이 큰 슬픔에서 헤어 나올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이번 호렙산을 통해서 기도하며 마음을 위로받고 거듭나겠다는 다짐으로 새벽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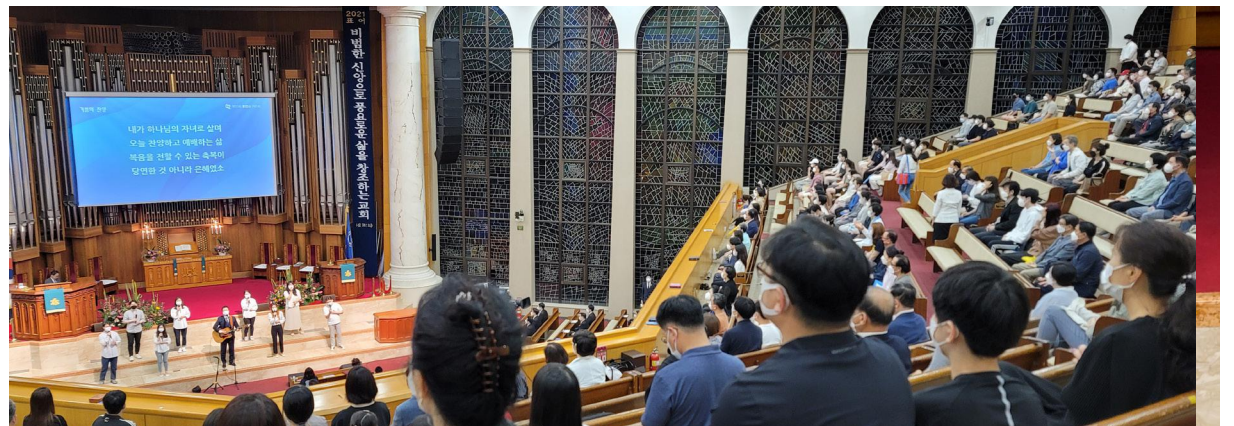
호렙산에 나온 지 일주일 되었을 무렵, 가장 큰 염원이었던 큰딸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슬픔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큰딸의 임신 소식으로 크게 위로해 주시며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일주일 뒤 병원에 다녀온 큰딸에게서 쌍둥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축하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주셨기에 이 기쁨을 어찌 감당할 수 있을지, 조심스레 마음을 다져봅니다. 하늘나라에 간 남편 홍성인 집사도 곧 감람동산 추모공원으로 모실 수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동과 감사가 넘칩니다.

가게(서문축산)에 일하는 직원들도 서로 뜻이 맞아 마음 편하게 일 할 수 있고, 작은딸(홍영아)도 임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곧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믿음 더욱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재숙 집사(7교구)



저희 가족 새벽시간을 바칩니다

20대 때부터 호렙산 기도회를 섬겼지만, 온전히 섬기게 된 것은 첫째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경제적, 일적으로 모든 것이 힘들어 매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고 있을 때, 호렙산에 오르는 시간이 저에게는 유일한 위로와 치유의 통로였습니다. 삶이 바닥에 있을 때 첫째를 낳고 물려줄 것이라고는 '믿음의 유산'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매년 호렙산 여정에 동참했는데 올해로 5년째가 되었습니다.

올해 저에게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가 호렙산 기도회를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를 반복하면서 소위 '경단녀'가 됐던 저는 감사하게도 작년부터 여러 프로젝트를 시작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호렙산에 올라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때 믿음의 선배들이 "혜선아, 너의 일은 하나

님께 맡기고, 너는 주님의 일을 해라"하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으로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하는 거야"라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호렙산 기도회를 며칠 앞두고 새벽에 선교회 자매님으로부터 남편이 호흡곤란으로 지금 병원 응급실이라고 기도해달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새벽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시 46:5)"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다행히 그 남편 분은 위기를 넘겼고, 지금은 호전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제가 새벽에 호렙산에 올라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올해 호렙산에 오르는 것을 망설였던 수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저

를 넘치게 사랑하셔서 호렙산에 올라 기도하게 하십니다. 새벽에 깨워 중보 기도함으로 이타적인 신앙을 알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교구, 선교회, 봉사 등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교만하고 뻔질거리는 저를 낮아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5년간 5살 아들, 3살 딸이 예배 시간에 청얼거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성스러운 예배 시간을 방해했을 수도 있는데, 성도님들이 늘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고 토닥토닥해주셔서 그것 또한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남은 호렙산 여정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심을 믿으며, 광림의 전통인 호렙산 기도회에 저희 가족 새벽 시간을 바칩니다.

한혜선 집사(10교구)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 7:38)

성령체험, 기도응답, 신앙 간증의 장

21년 전, 저는 첫 번째 호렙산을 오르며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곧 응답을 받게 되었고, 그때 주신 둘째는 지금 성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호렙산을 시작하며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고,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호렙산 기도회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늘 제 가까이 있었습니다.

유독 호렙산 기간 중 수술이 많았던 친정어머니의 치유 회복의 기도와 신앙회복을 두고 기도하던 남편의 입에서 “사업의 중요한 순간이니 두 배로 기도해 달라”는 꿈같은 기도 요청이 저에게는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걷는 자녀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한 호렙산은 언제나 여호와 이레의 예비 된 축복을 발견하는 짜릿한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호렙산 기도회는 자연스럽게 저의 입술을 통해 간증이 흘러나와 속회 때마다, 선교회마다 제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 식구들은 자녀들이 어리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호렙산에 함께 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선물처럼 찾아오게 되어 지구, 속회의 식구들과 함께 호렙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호렙산 기도회를 사모하던 새신자와 함께 오르기 위해 자발적으로 카풀을 하게 되고, 서로 자연스럽게 차량 봉사에 동참하면서 많은 지구 식구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쉽 없이 진행한 금요 속회도 호렙산 기도회 중에는 새벽기도 후 하기로 했고, 코로나로 인해 집합금지 때에는 줌으로 속회에배를 드리며 설레는 맘으로 호렙산을 기대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

으로 발전한 우리 지구는 2년 동안 4명의 성도님들이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고, 유아부 교사와 트리니티, 여성교회에서 봉사 중이며, 교구 일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명이 함께 기도동산에 오르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참여 중입니다. 호렙산 기도회를 통한 속회에서의 간증은 저희 지구를 더욱 열심히 모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중보기도로 새벽을 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지금은 더 큰 꿈을 꿉니다. 17교구 9지구 남편들도 같이 호렙산 기도 동산에 오르기를, 그 자리에 저의 남편도 동행하기를, 그 새로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오늘도 감사하며 힘차게 새벽을 깨워 호렙의 성산에 오릅니다.

이상민 권사(17교구)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

지난 46년 동안 저의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기쁨과 행복, 힘든 고난과 절망스러웠던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온 맘 다해 감사드립니다.

모태 신앙임에도 중학교 때 공부 한다는 핑계로 주일을 잘 지키지 않았지만 친구를 따라서 광림교회 중고등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난을 이기고, 치유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광림교회로 인도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1993년도 5회 때 호렙산 기도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새벽마다 엄마가 운전하셨는데 앞이 보이

지 않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첫날은 교회 근처 오락실 앞에 주차를 했는데 바퀴에 펑크를 내놓았고, 둘째 날은 비가 많이 오는데 와이퍼가 부러졌고, 셋째 날은 도로 한가운데 갑자기 장애물이 세워져 있어 부딪히는 사고를 연거푸 겪고 나서는 호렙산에 오르기 전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습관을 주셨습니다. 호렙산에 오른 지 25년 만에 응답해 주신 감격스러운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한번에 들어 주시기도는,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신 후 응답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낙심하기보다 ‘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은밀히 행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며 기도의 자세를 고쳐 잡습니다.

지금은 뉴질랜드에서 가정을 꾸려 생활하고 있는데, 뉴질랜드 광림교회에 다닐 수

있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1995년 부활절 예배 때, 김선도 감독님께서 저 멀리 뉴질랜드에 이번 부활절 헌금으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뉴질랜드가 어딘지 잘 알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뉴질랜드 광림교회를 섬기다니,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으로만 살기를 다짐합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를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뉴질랜드에 다시 돌아가서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행복한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김은우 집사(16교구)



신앙 간증

나의 삶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청년부 박소연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가고 있는 제 삶의 일부를 간증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석사 과정 국제개발협력학을 전공하였습니다.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졸업 후 최대한 빨리 취직을 해서 현장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석사 지도교수님과 어머니의 조언에 박사과정을 큰 기대감 없이 지원하게 되었고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 시작함과 동시에 코로나로 인해 모든 수업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지도교수님을 아직 정하지 못해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관심 분야인 '개발도상국의 과학교육'은 아직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는 분야가 아니기에 이 분야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지도해 주실 분을 만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장의 수 많은 사업들이 멈추게 되었고, 개발협력에서 2020년은 잠시 시간이 멈춘 듯하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박사과정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책들과 세미나를 통해 무작정 현장에 나가는 것이 답이 아니라 지금은 이 분야에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을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학과에서 과학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저 혼자라 처음에는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 관심 분야를 바꿔볼까 고민도 하였지만 제 마음에 이 분야를 사명으로 주신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길 방향성을 구했습니다.

나를 1년의 고민이 많았던 시간을 보내고 지금은 제 연구 주제를 응원해주시는 교수님들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연구자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눈에 모든 것들이 멈춰있어 보일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저의 모든 약함, 상처와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녹아내려 연구를 통해 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각자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속원들과 청년부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박소연 속장 (청년부)

“떡볶이, 떡과 복음이 이곳에”

〈LFC 광림 청년부 노숙인선교팀〉



광림교회 청년부의 노숙인선교팀은 매달 4번째 월요일마다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로 13년 차 노숙인들을 섬기고 있는 떡볶이 노숙인선교팀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주의 사랑을 전하며 기도하는 청년선교팀입니다. 선교팀은 지하철 서울역, 충정로역, 시청역과 남대문 일대에 있는 노숙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준비한 간식을 전하고 기도 사역을 진행합니다. 밤 8시에 팀모임으로 시작한 다음, 이화동에 있는 '거리의 천사들' 센터로 이동하여 사역은 새벽 2시에 마무리 합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거리의 천사들' 기관에서 진행했던 라면 배식을 함께 도왔지만, 2019년도 말부터 기관의 중심 사역을 노숙인들의 자립을 돕는

것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청년들도 기도 사역과 손편지와 작은 선물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5월에는 병원에서 치료 받으면서 자립중에 있는 분으로부터 “손편지 보고 다시 마음 먹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빨리 나아서 일하고 저도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일상의 한 자리에서 팀모임을 통해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가진 청년들은 한 마음으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계절의 변화에도 변함없이 외로운 거리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님이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며 사랑하신다는 마음으로 손편지를 준비하고, 간단한 간식을 챙겨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태연 자매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며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더불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사역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팀원으로 함께 하고 있는 정진우 형제는 “노숙인 선교팀은 제 안에 사랑이 없음을 느끼고, 고개 숙이고, 낮아지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낮고 겸손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고, 나를 향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단기간으로 사역에 참여했던 방승언 형제는 “보통 중보기도제목을 받게 되면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지만 노숙인 사역을 통해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에 있는 분들이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광림의 청년들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일인 끝 나에게 하신 것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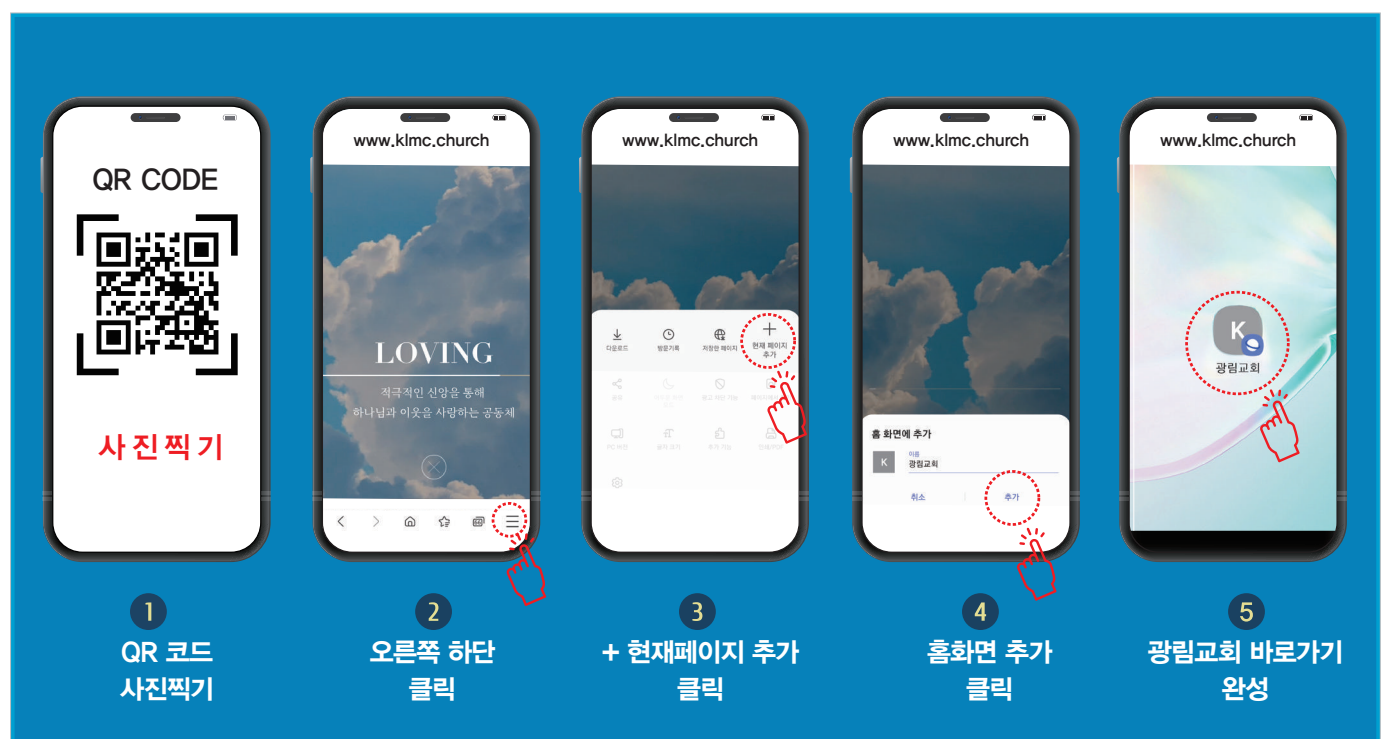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광림홈페이지 사용설명서 A To Z 1

아직도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시나요?

광림교회 홈페이지가 지난 5월말 호렙산 기도회 시작과 함께 새롭게 오픈했다. 새 홈페이지는 광림의 모바일 교회로 예배와 교회소식, 교회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한다. 이번 홈페이지는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어느 환경에서 접속해도 최적화된 크기와 디자인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편의성을 높였다. 현재 이용자의 PC와 모바일 사용비율은 3:7 정도로 모바일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유튜브를 통한 예배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각종 광고와 콘텐츠 등 방해요소들이 끊임 없이 우리를 유혹한다. 핸드폰 첫 화면에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설치하자. 클릭 한번만으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 즉시 따라해보자.

이선아 기자



“캠핑 with 호렙산”

〈광림남교회〉



제33회 호렙산 기도회를 참석하던 중, <캠핑 with 호렙산>을 광림 수도원에서 한다는 소식에 가슴이 마구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캠핑을 좋아했었는데 그동안 삼 남매를 임신, 출산, 육아 하느라 수년째 못 갔었기에 캠핑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호렙산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참여 가능하다는 것이 저를 더욱 설레게 했습니다.

캠핑 당일이 되자 아이들은 어린이집 대신 캠핑장으로 바로 가지고 성화를 부리며 등원 거부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습니다. 수도원에 도착하여 울창한 나무와 자연을 보는 그 순간부터 힐링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터에 멋진 캠핑장이 만들어져 있었고, 아이들을 위한 에어바운서가 설치되어 일반 사설 캠핑장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멋진 장소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남, 여선교회와 여러 장로님 가

정 그리고 청장년부 회장님 가정의 후원과 헌신 덕에 맛있는 숯불 BBQ와 손수 만드신 찜장과 김치 등 먹거리도 풍성했습니다. 다음 날까지도 닭강정, 아이스크림 등 끊임없이 공급되는 양식들로 넉넉히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이튿날 새벽 새로 리모델링 된 성전에서 다 같이 모여 분당만큼 뜨거운 호렙산 기도회를 참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 손 잡고 다니던 수도원에서, 이제는 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 갈 수 있음에 더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민음의 대를 물려줄 수 있음이 감사하였고, 또한 부모의 책임감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육아와 업무로 지친 일상에 호렙산 캠핑은 단비였고 선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자리를 빌어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용락 집사(광림남교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 목회현장 -



김항호 목사 (광림남교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 1:20~21)

지난 3월 남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오래 함께 신앙생활 해오신 권사님의 장례에 바이러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삼삼오오 조문을 하며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암으로 1년 넘게 투병하시다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빨리 이별을 맞이한 성도님들은 아쉬움이 너무 커 조문 후에도 쉬이 발걸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애곡하는 소리가 쉬지 않고 들리는 슬픈 장례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천국의 확신으로 두려움 없이, 기쁨과 감사로 생의 마지막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소천하시기 전까지 여러 번 댁에 찾아가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아쉬워 속회 식구들과, 선교회 식구들과 함께 눈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길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권사님께서 왜 슬퍼하시냐고 물으시더군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시는 것을 믿는데, 살든 죽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기쁨이 된다고 도리어 찾아와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진통제도 듣지 않는 심한 고통 중에도 말입니다.

마지막 권사님의 모습을 본 것은 소천하시기 2일 전 호스피스 병동에서 영상통화였습니다. 웃으시며 천국에서 만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임종을 지키 가족께서 전하시길 마지막은 고통 없이 편하게 웃으시며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누가 제게 천국이 있느냐 묻는다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천국을 엿본 사람은 권사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권사님의 마지막 제게 하신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니 죽음도 유익합니다.”라 고백하신 권사님,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멋진 고백으로 하루를 주님께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호렙산 기도회

〈광림서교회〉



광림서교회는 제33회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은혜의 말씀과 기쁨의 찬양,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를 통하여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오르는 호렙산>을 진행하며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였고, 7월 3일 호렙산 기도회 후 안수기도를 가졌습니다. 또한 1층 로비에 준비된 <소망사진관>을 통해 많은 가족들이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호렙산에 오르는 고유미 성도는 “평소에도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새벽기도를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성공하였습니다. 6학년 아들(양재호)와 함께 한 새벽기도였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벌떡 일어나는 아들을 보며 도전을 받았고, 저도 더욱 힘을 내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호렙산 새벽기도회를 통해 제 신앙생활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광림서교회에서 세 번째 호렙산에 오르는 김충옥 권사는 “매년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방송이나 책에서 접할 수 없는 말씀을 통해 느낀해진 믿음의 허리띠와 신발 끈을 다시 조이고 달려갈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조아라 전도사 (광림서교회)

아름다운 기도의 축제 호렙산!

〈광림북교회〉



벌써 호렙산 40일의 대장정이 끝을 맺었습니다. 매일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축복의 약속, 뜨거운 기도와 찬양의 열기 속에 4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물은 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북교회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토요일 호렙산을 <총동원 호렙산>이라 이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했습니다. 5주차 <총동원 호렙산>에서는 안수기도와 소망사진관 촬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오르는 것 자체가 큰 믿음의 유산이고 신앙의 추억입니다. 북교회 모든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특히 올해 새가족으로 등록한 최미영 성도는 예수님을 처음 믿음에도 불구하고 딸 시연(중 2)이와 ‘40일 완주’를 해냈습니다. 최미영 성도는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낯선 것도 많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일평생을 내 뜻대로

만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호렙산 중간에 새가족으로 오신 이신재, 정해자 성도 부부는 처음 온 날부터, 28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사업장을 운영하심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습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호렙산 마지막 날, 교구회장으로 섬겨주시는 정환명 권사 가정에서 북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특별한 선물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귀한 선물도 나누면서 호렙산 40일의 대장정을 축제의 시간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 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로 함께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양식 전도사 (광림북교회)



김선도 감독의 아흔 인생과 ‘장천 울림’ 목회신학 이야기

9 리처드 포스터(미국 아주사퍼시픽 대학교 영성신학 교수)



〈목사 김선도1〉 ‘목회가 참 신났습니다’ 에서 리처드 포스터 영성신학 교수는 ‘영성의 목회자, 김선도 감독’이라는 제목으로 김선도 목사의 인생은 ‘믿음의 열정과 불굴의 의지와 순전한 기도를 통해 인생의 전환기가 영성을 확대 시키는 연대기’라고 했다. 또 김선도 목사의 영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는 빛’으로서 ‘역사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세계적인 영적 일가를 형성한 영성의 보물창고 모델’이라고 하면서, 김선도 목사의 인생과 영성의 연대기를 20개 장면으로 보여주었다. 아래는 리처드 포스터 교수의 글 요약본이다.

〈인생과 영성〉

영성의 연대기가 된 김선도 목사 인생

인생에 전환점을 맞을 때마다, 김선도 목사는 인생의 연대기를 영성의 연대기로 심화하며 확장해나갔다. 북한군의 군복을 벗고 남한군의 군복을 입었을 때 한국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의사 가운을 벗고 목사 가운을 입었을 때 그의 인생은 영성의 차원으로 탈바꿈했으며, 공군 군복의 제복을 벗고 광림교회 담임목사가 되면서 민족의 목사에서 열방의 목사로 전환되었다.

세계적인 영성의 모델

김 목사는 수천수만 명의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한국형 감리교를 세계 최대 감리교로 탄생시켰으며 짐바브웨, 터키, 러시아 등에 선교 센터를 설립했으며, 세계의 명문 대학에 있는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김선도 목사 연대기의 20개 장면〉 인생과 영성의 틀에서 본 김 목사 연대기

1. 현존하는 세계적 목회자

김 목사는 미국 부활의 교회 스테인글라스에 새겨진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가장 고령의 목회자다.

2.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한 인생

한국전쟁과 세계대전을 직접 몸으로 경험한 역사적 인물로서 죽음의 전쟁터 속에서 그는 육신의 상처만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을 치유하리라는 결단을 했다.

3. 동양의 예루살렘 선천의 영향

기독교의 원형을 간직한 곳,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나서 청교도적인 신앙관과 생활관을 가지고 자랐다.

4. 오직 예수만을 모델로 의사가 된 청년
청소년기에 예수님처럼 의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1948년 신의주 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다.

5. 인생을 바꾼 ‘5분의 기적’

1950년 한국전쟁에서 북한 군의관으로 강제 징집된 후, 1사단 한국군을 만나 불과 5분 만에 그는 북한군에서 국군 의무관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

6.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겠다는 다짐
1951년 1월 4일, 전쟁의 포화 속에서 “김선도, 너는 죽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다”라고 스스로 선언하였다.

7. 약한 자를 돌보다

1953년 휴전 후 그는 군복을 벗고 경남 고성에 가서 그곳에서 야학을 열어 피난민들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찾아온 환자들을 치료했다.

8. 가족과의 상봉

한국전쟁 중 군산 선양동의 피난민 판자촌에서 가족들과 해후했다.

9. 감리교인이 되다

장로교 출신이었던 김목사는 의정부의 천막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되면서 감리교인이 된다.

10. 신학도가 되다

1954년 25세 김목사는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하면서 존 웨슬리의 설교와 신학을 익혔다.

11. 목회 인생의 시작

1957년 서울의 전농감리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로 첫 목회를 시작하면서 서울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로 일하던 박관순 사모를 만났다. 신실한 믿음으로 철학과 역사, 음악

을 좋아하는 박관순 사모와 1960년 4월 아현 감리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12. 희생하는 삶

궁핍한 살림에 형제들과 함께 비좁은 목사관에서 살면서 성도들을 돌보면서 그는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 하나님께 치유와 위로의 능력을 부르짖어 간구했다.

13. 전설의 군목이 되다

1962년 청년을 향한 목회비전을 갖고 군목에 지원해서 합격하면서 대전 공군기술교육단 항공병학교에 파송 받았다.

14. 복음을 위한 헌신

사병들과 동고동락하며 장교를 전도하고 월급을 털어가며 교회에배당을 건축했다.

15. 기도로 완성된 유학길

1967년에는 미국 유학길에 오른 후, 유학 기간 동안 하루 4시간 정도 자며, 밤12시가 되면 존 웨슬리가 말을 타고 있는 동상 앞에서 기도했다.

16. 하나님께서 이끈 또 다른 전환점

1970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서울 공군사관학교 군목으로 부임했다.

17. 광림교회로 부임하다

광림교회 성도들이 국방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국방부의 제대 특명이 나왔고 1971년 11월 광림교회로 부임한다.

18. 새 시대를 연 광림교회

500명 좌석의 교회에 150명이 예배하던 광림교회에서 1978년 지금의 광림교회 터전에서 기공예배를 드리게 된다. 건축 규제와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 건축의 난제들이 몰아쳤지만 건축과정은 기적의 연속이었다.

19.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다

1979년 12월, 입당 예배를 드렸을때, 5천 개 좌석이 모두 찼으며, 이제 8만 5천 명의 성도가 예배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로 부흥했다.

부흥의 비전이 현실이 되도록 김 목사는 영혼을 상실한 이들에게 소속감을 주는 설교,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흔들리는 이들에게 새 비전을 제시하는 설교에 열정과 시간을 쏟아부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으로 회귀하는 인생역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1984년, 광림의 5대 전통(적극적 신앙, 풍요한 창조, 성실한 생활, 사랑의 실천, 일치된 순종)은



▲리처드 포스터
(미국 아주사퍼시픽 대학교 영성신학 교수)

성도들의 신앙에 뼈대가 되었다.

20. 창 의적 목회로 이룬 세계적인 교회
교회에서 처음으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남자 성도들이 교회에 넘치는 계기를 마련했고 호렙산 기도회를 40일간 실시하며 요양시설인 '사랑의 집'을 건축하여 사할린 동포 1세대들이 영구 귀국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 국내외에 수많은 교회를 건축하고 목사를 파송하고 성도들을 양육했다.

광림수도원은 영성센터로, 광림사랑의 집은 치유센터로, 광림국제비전랜드는 교육센터로, 광림세미나하우스는 연구센터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013년에는 광림 사회봉사관을 봉헌하여 세계 선교와 사회 선교의 금자탑을 쌓고 있다.

정리: 안미영 기자



2013년 김선도 감독님 홍상제막식에서 영국 웨슬리체플 레슬리 그리피스 목사와

